

# 한국 축산물 위생 처리 협회

협회지 제 60-1호 2003년 4월 10일(목)

## 제목1: 축산물가공처리법령중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는 귀부의 축산물가공처리법중 개정법률안, 동법시행령중 개정령안 및 동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아 래-

□,

축산물가공처리법중 개정법률안 제 7조3항, 동법 시행령중 제 21조 4호, 동법시행규칙중 제 4조 개정령안 중 자가소비에 사용하거나 생산자의 소유지에서 소비자에게 해당 장소에서 직접 조리·판매하기 위하여 의 항목신설을 반대함.

-사 유-

- ①이 안이 제정될 경우 생산자들이 마구잡이로 자가도축하여 조리·판매를 할 수 있으며, 철저히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비위생적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②기존 도축장에서는 HACCP적용작업장지정을 받기 위해 수십억원의 시설재투자로 위생적으로 도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데 이 항목이 제정될 경우 폐쇄되는 도축장의 대체로 이용될 수 있음.

\* 축산기업조합중앙회와 같이 이의를 제출하였습니다.

## 제목2: 농림부, 축산국 조직개편안 마련

농림부 축산국은 축산물 소비·홍보 강화를 위해 각 품목과에 소비·홍보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축산국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축산물 소비·홍보 업무를 한우·낙농·양돈·양계부서에 각각 신설하되 축산물위생과에서 소비·홍보 및 마케팅전략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 양돈업무는 축산경영과에서 축산물위생과로 이관하고, 축산환경업무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축산경영과에 농업직을, 친환경농업과에 축산직 1명을 교체배치, 축분퇴비 수요개발 및 품질관리를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방역과에 행정주사 1명도 증원할 계획이다.  
발체 : 축산신문

## 제목3: 돼지고기 안전성홍보 대대적 전개

돼지콜레라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양돈농가의 조기출하 및 소비위축 등이 우려됨에 따라 농림부 등 관련단체들이 돼지 정상출하 권장과 함께 돼지고기 안전성 홍보와 소비촉진에 대대적으로 나섰다.  
농림부는 대한양돈협회로 하여금 양돈농가에 정상출하 유도를 위해 양돈농가 휴대폰에 문자 및 음성메시지를 긴급 전달하는 한편 정상출하 포스터 및 리후렛 제작을 제작, 전국 양돈농가에 배포토록 했다.  
또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TV광고(KBS, MBC, SBS 공중파 3사와 YTN, MBN, 한경와 우 케이블 3사)를 4월 한달동안 2백63회 방영할 계획이다./표창조 농림부는 농협 및 식육점을 통한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자가격 10% 인하를 추진토록 하고, 백화점·대형할인매장·하나로마트 등을 이용한 할인판매 행사를 개최토록 촉구하고 있다.  
특히 돼지고기 안전성에 대한 리후렛을 제작, 식육점 및 대형할인매장 등에서 배부토록 하고, 진해군항제 벚꽃축제 등과 같은 행사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돼지고기 시식회를 하도록 권장하는 등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통한 양돈농가의 가격안정에 껴걸음을 하고 있다.  
발체: 축산신문

제목4: 줄잇는 생우수입-‘애끓는’ 한우농가

-3일 호주산 830두 반입 이어 5월 851두 추가 수입 계획

호주산 생우 830두가 지난 3일 인천항으로 수입된 데 이어 5월 호주에서 851두, 7월 미국에서 851두 수입이 예정되는 등 생우수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한국영농법인중앙연합회 축산물수출입사업단은 지난 2002년 10월 수입에 이어 2번째로 지난 1일과 3일 부산항과 인천항에 각각 287두와 543두를 하역했다.

수입된 생우는 체중 450~500kg 블랙앵거스 50%와 헤어포드 50%로 수입가격은 관세를 포함해 생체kg당 4400~4500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5월 호주에서 선적될 생우는 6월 중순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며 이어 미국산 생우도 7월에 미국 오리곤주에서 선적, 8월 초 인천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한우협회는 수입생우의 농가입식 차단활동을 계속 유지하고 생우입식농가에 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등 기존 입식저지 활동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지난해 10월에 수입된 후 경기도 태평목장에서 사육중인 호주산 생우 블랙앵거스 560여두는 8개월간의 비육기간을 마치고 올 6월 중에 전량 도축될 예정으로 있어 도축 후 육질등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발췌: 한국농어민신문

-◆수입 현황=지금까지 수입된 생우는 모두 호주산이다. 수입 자유화 첫해인 2001년 4월 663마리, 5월 664마리, 지난해 10월 상순 563마리, 올 1월26~29일 847마리, 4월2일 도착한 5차분 830마리를 합치면 2년4개월 동안에 모두 5차례에 걸쳐 모두 3,567마리가 수입됐다. 또 8월에는 미국으로부터 850마리가 들어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입 배경=생우가 본격적으로 수입되는 것은 한우시장이 급속히 위축, 한우값의 초강세가 유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육우 사육마리수가 1997년 말 273만5,000마리에서 지난해 말엔 141만마리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한우 큰 수소(생체중 500kg 기준) 값은 올 4월1일 현재 364만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2년여동안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수입에 발미를 주고있다. 지난해 수입된 호주산 생우는 생체중 450kg 안팎의 거세 수소로, 농가 최종 입식 가격은 한마리당 220만원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현재 같은 체중대의 한우 수소값보다 35~40% 싸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등급만 뒷받침해주면 경쟁력이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발췌: 농민신문

제목5: 김영진 농림장관 “수입생우 검역 시설-현재 수준으로 유지”

앞으로 수입생우 검역시설은 현 수준으로 유지되고 한우협회 회원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원산지 단속을 강화한다.

김영진 농림부 장관은 지난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국한우협회 회장단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수입생우 검역시설 규모는 더 이상 확장하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차후 수입생우에서 블루팅병이 발생할 경우 국내 검역 전문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해 수출검역 절차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통과돼 ‘쇠고기 음식점원 산지표시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발췌: 한국농어민신문